

【2019 '평화의 책'】

서평

100년의 역사, 50년의 과제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돌베개, 2019)

이기훈 (연세대학교)

3·1운동사 서술의 역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학사적 연구 주제다. 근대한국학에서 3·1운동은 '민족'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였으며, 한국 사회의 자기 인식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제였다.¹⁾ 특히 50주년, 70주년 그리고 올해 100주년의 연구 논저들은 현대 한국의 역사인식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9년 50주년을 맞아 역사학은 물론, 문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3·1 운동 연구를 진행했고, 『3·1 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등 기념비적인 논저들이 간행되었다. 대체로 이 연구들은

1) 북한의 경우는 1960년대 3·1운동을 '인민봉기'로 규정하고 혁명사 속의 위치를 확정했다. 북한식 주체 사관의 입장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의 역사적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미친 영향 또한 훨씬 작다. 홍종욱, "북한 역사학계의 3·1 운동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 운동 100년 1 메타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19) 참고.

이 무렵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민족사를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과정에서 서술하려는 한국학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근대를 향한 진보와 독립의 역사적 주체로서 ‘민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3·1 운동에 대한 교과서적 인식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1 운동을 5·4 운동을 비롯한 아시아 약소민족 해방 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선학들의 연구업적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후 3·1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이 과도해지면서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는 아시아 민족 운동을 가져온 대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세계사 속에서 운동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1989년 70주년에는 『3·1 민족해방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민족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의 창출을 넘어, 현실 사회운동에 제공하는 전략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3·1운동에 접근했다. 3·1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한 분기점이 되었다. 3·1 운동을 계기로 부르주아와 민중의 운동이 분리되며, 민중이 민족운동의 주력군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주체가 전환하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투쟁양상이 전환한다는 단계론적 혹은 성장 전환론적 3·1운동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런 민중 주체의 발전론적 모델은 그 도식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운동의 전개와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적 견해지만, 100주년을 맞이한 학계의 과제는 기존 인식의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다양한 분야와 시각에서 접근한 역사학자들의 집단적 연구도 있었고, 운동의 전개과정을 세심하게 재현하고 그 의미를 밝힌 연구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²⁾ 그러나 나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성공

한 것은 권보드래 교수의 『3월 1일의 밤 -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한 서평은 이 책을 “혼자 쓴 총서”라고 했거니와,³⁾ 10여 년에 걸친 장구한 연구의 공력과 성과는 실로 수십 명 연구자들이 간행한 총서와 맞먹는다. 같은 연구에 종사하는 동업자 독자이니만큼, 이 책을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료와 참고문헌들을 읽어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두 개의 과제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세계사적 해석”과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방식으로 3·1운동에 접근한다. 선언, 대표, 깃발, 만세, 침묵, 약육강식, 제1차 세계대전, 혁명, 시위문화, 평화, 노동자, 여성, 난민/코스모폴리탄, 이중어, 낭만, 후일담 등 16개의 주제들은 모두 ‘세계사적 해석’과 ‘문화론적 접근’의 방식을 통해 3·1운동의 시대와 사건, 인간과 집단을 해석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선도성보다 동시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 연구의 과잉 민족주의적 해석을 극복하고자 한다.⁴⁾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의 ‘세계사적 해석’은 기존의 3·1 운동사에서 단순히 ‘배경’과 ‘영향’에 배치되어 있던 ‘세계’를 운동의 전 과정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의 새로운 의미를 읽는다. 그것은 공간의 확장이나 국민국가의 국제적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필연이며 합법칙성, 또는 그 이상의 것 즉 유토피아의 가능성이었다. 이런 해

2)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 운동 100년 1-6』(서울: 휴머니스트, 2019); 박찬승,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파주: 다산북스, 2019).

3) 홍종욱, “3월 1일의 밤은 대한민국의 봄이었다,” 『개념과 소통』 23 (2019).

4) 한승훈, “3·1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한국역사연구회 3·1 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 운동 100년 1』(서울: 휴머니스트, 2019); 김학재, “3·1 운동의 한 세기: 20세기의 비전과 한반도 평화,”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 운동을 보다』(서울: 창비, 2019).

석은 참여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문화사회학적 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생, 유학자, 기독교인,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급격히 다가온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조선의 현실 속에 개입시켰는가? 세계는 유토피아, 혁명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 가능성으로 통하는 문제였으니 국경을 넘는 청년 세대들을 낳는 동기였다.

나는 이 책에서 ‘문화론적 접근’의 가장 큰 성과가 ‘민족’ 혹은 ‘계급’ 주체들의 이야기로 만든 운동의 발전론적 서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3·1 운동의 전형적 서사에 대한 실증적 비판이나 매체 분석적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다양하고 중층적인 주체(농민, 노동자, 청년, 학생, 여성...)들의 운동 참여 과정을 분석해왔다. 무엇보다 정체성의 교차와 중첩(예를 들어 여성-학생, 여성-기생, 여성-백정...)속에서 개인들의 의지와 행동을 다시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성과가 크다. 특히 소설과 상상을 동원한 서술은 역사학자들로서는 해내기 어려운 시도이며,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사상사나 사회사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3·1 운동의 구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이 책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먼저 연구의 소재라는 점에서 깃발, 선언서, 만세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매체, 상징, 시위 도구와 구호들의 의미를 꼼꼼하게 읽어 냈다. ‘문화론적 연구’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분석을 통해 공화주의와 민족, 세계, 혁명 등 관념의 도입과 확산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이런 세심한 연구는 실제 운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저자는 3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적어도 서울에서는 ‘태극기’가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흥미롭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원래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는 운동의 확산 속에서 독립 공화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에도 '독립만세' 등의 구호가 포함된 깃발들이 태극기를 수정 보충하려 했다고 보았다. 선언서와 깃발이라는 시위의 도구이자 상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의식의 변화를 밝혀 보려 한 것이다. 또 '만세'라는 언어적 수행 속에서 운동 참여자들의 유토피아 지향을 읽어내려 한 시도도 운동의 현장에서 집단적 '사상'의 형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 책의 '세계사적 해석'과 '문화론적 접근'은 한국학 학술사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미 한국학은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국한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한국학들은 상호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에서의 한국학, 미국, 캐나다의 한국학, 일본의 한국학, 중국의 한국학은 각각 자기 논의 구조를 가지고 진행된다. 세계와 한국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연구는 한국학의 상호소통을 넘어 보편한국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저작이지만 '평화'와 '폭력'의 문제를 다룬 장은 모호하고 난해하다. 평화와 폭력은 3·1운동 100주년 연구의 가장 큰 쟁점이다. 기존의 성장진화론적 이해가 전제하는 <비폭력 투쟁 → 폭력 투쟁 → 해외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저자도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저자는 평화와 비폭력이 3·1운동의 주요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제국주의 권력의 폭력과 봉기 대중의 폭력을 구분한다. 시위 현장에서 대중의 폭력은 '만세'와 마찬가지로 저항의 축제로 초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다. 그러나 <만세 후>의 사회 운동에서 다시 '평화'가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장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계속 탐구하기를 바란다.

이기훈(Lee, Ki Hoon)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부교수에 재직중이다. 한국근대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저서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청년 근대를 호명하다』(돌베개, 2014), 논문 「집회와 깃발- 저항 주체 형성의 문화사를 위하여」, 『학림』 39, 2017, 「3·1운동과 깃발」, 『동방학지』 185, 2018; 「만세 현장의 미디어와 상징체계, 3·1 운동의 깃발과 선언서」, 『역사문제연구』 42, 2019 등이 있다.